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물가 상승 또는 하락? 둘 다일 가능성 있다.
- CNBC: SF 연준 총재 “2월 일자리 보고서로 금리 판단 쉽지 않다”

[미국 금융]

- WSJ: JP모건, “전쟁 리스크로 S&P 500, 10% 조정 가능성”
- WSJ: 트럼프 전쟁 확대 신호로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분위기

[중동 위기]

- WSJ: 이란 대응 완화 조짐 없어...하메네이 차남을 후계자로

[오일]

- YahooFinance: 이란 전쟁으로 다음 달 휘발유 4불 돌파 가능성
- WSJ: 오일가 1백불 돌파했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미 젊은 층 오프라인 쇼핑몰 찾는다
- WSJ: 회사들이 직접 AI로 CRM 소프트웨어 만들어

---

[미국 경제]

**WSJ: Is Inflation Cooling or Stubbornly High? Both Can Be True.**

미 물가 상승 또는 하락? 둘 다일 가능성 있다.

- 미 물가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 관련 주요 물가 지표가 정반대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1월의 미 12개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Consumer Price Index)는 작년 1월과 비교 2.4% 상승했다. 반면에 작년 12월의 연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는 2.9%를 기록했다. PCE는 목표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올해 1월 PCE는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 두 지표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가계가 실제로 지급하는 물품과 서비스 가격을 조사한 설문에 근거한다.
- 반면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는 가계 소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가계가 직접 지불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이 대신 지불하는 의료비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CPI는 주거비 비중이 매우 큰 반면, PCE는 정부나 기업이 대신 지불하는 의료비 등을 포함해 의료비 비중이 더 크고 주거비 비중은 더 낮다.

기사

**CNBC: San Francisco Fed's Daly says jobs report complicates interest rate call**

## SF 연준 총재 “2월 일자리 보고서로 금리 판단 쉽지 않다”

-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인 Mary Daly는 이번 2월 일자리 보고서로 금리 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물론 2월 고용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한 달 치 데이터만으로 전체 추세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신호다.
- 그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이상으로 연준 목표를 넘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판단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 특히 그는 “노동시장 안정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당분간 금리 인상은 어렵고 인하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기사

### [미국 금융]

#### WSJ: JPMorgan Sees 10% Correction in S&P500 as War Risks Build Up JP모건, “전쟁 리스크로 S&P 500, 10% 조정 가능성”

- 미국 주식 트레이더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S&P 500 지수가 최고점에서 최대 10%까지 하락하는 조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JP Morgan의 글로벌 시장 정보 담당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배럴당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자, 오늘 월요일 미국 주식에 대해 “기술적 약세(tactically bearish)” 입장을 보였다.
- 이번 조정은 미국 벤치마크가 최고점에서 10%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S&P 500은 약 6,27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금요일 증가 대비 약 7% 낮은 수준을 말한다.

#### Correction Would Drag S&P 500 to 6,270

● S&P 500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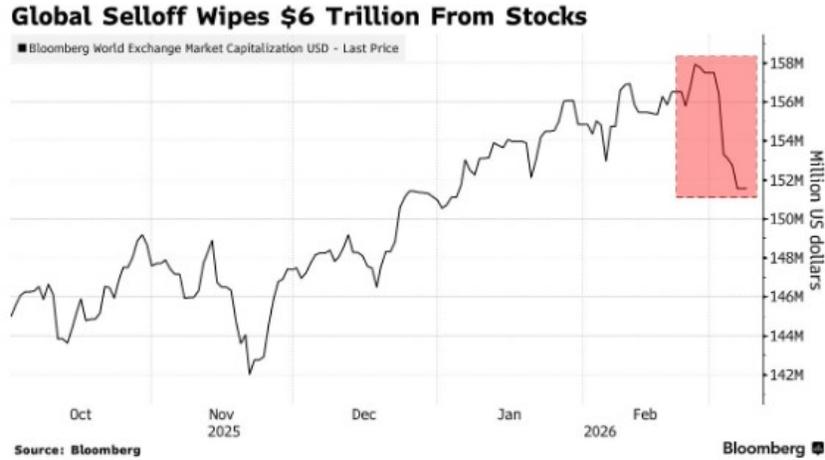
Source: Bloomberg

기사

#### WSJ: Stagflation Trades Sweep Markets as Trump Signals Widening War 트럼프 전쟁 확대 신호로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분위기

- 중동 분쟁의 해소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기대가 사라지고 있으며, 시장은 더 장기적인 공급 충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 분쟁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해 브렌트유는 하루 동안 최대 29% 상승했고, 글로벌 주식시장 가치도 약 6조 달러가 사라졌다.
- 투자자들은 이제 장기적 침체에 대비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 각국 정부는 충격을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는 주식시장 손실을 막기 위한 안정 조치를 검토 중이다.



기사

## [중동 위기]

### WSJ: Iran Signals a Fight to the End With Appointment of Khamenei's Son

이란 대응 완화 조짐 없어...하메네이 차남을 후계자로

- 사망한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대응일 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직이 처음으로 세습된 사례에 속한다.
-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란-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했다. 그는 2019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받았던 인물이다.
- 임명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신임 지도자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끊이지 않는 공격에 직면한 국가를 물려받은 상황이다.

기사

## [오일]

### YahooFinance: Gas prices could hit \$4 in the next month as war in Iran escal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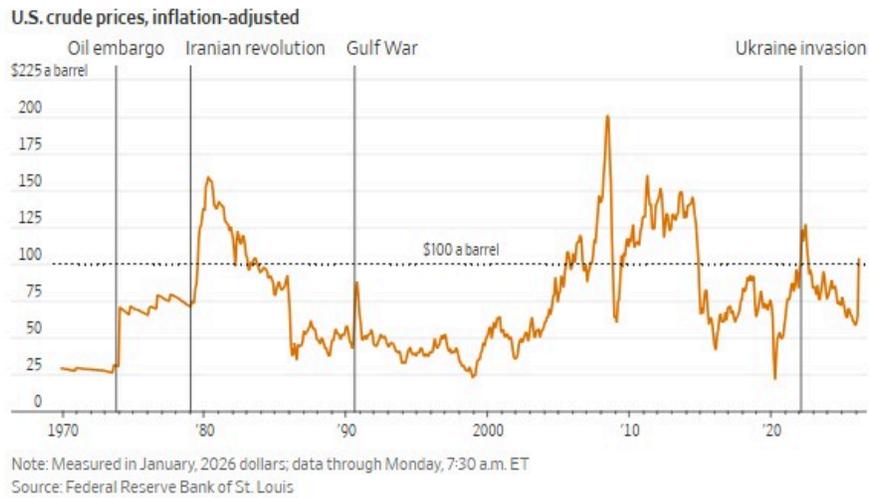
이란 전쟁으로 다음 달 휘발유 4불 돌파 가능성

- 이란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에 갤런당 50센트 상승하면서 앞으로 수주가 지나면 4달러 까지 인상될 수 있다.
- 호르무즈 해협은 전체 오일의 20% 가량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 원유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휘발유는 갤런당 25센트씩 상승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나 조만간에 휘발유 가격이 4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기사

### WSJ: As Oil Surges Past \$100, Long-Feared Gulf Squeeze Is Here 오일가 1백불 돌파했다

-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인해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훨씬 웃돌고 있다.
- 이 지역 유조선의 통행량은 유조선 보험 중단 등으로 거의 없는 상태다. 일부 석유 분석가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최후의 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 한편 카타르에 위치한 가스 수출 기지인 RAS Laffan) 대한 드론 공격 이후 카타르가 가스 생산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5분의 1이 사라진 상황이다.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A New Generation of Mall Rats Has Arrived 미 젊은 층 오프라인 쇼핑몰 찾는다

- Z세대는 오프라인 쇼핑몰 쇼핑을 선호하면서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은 업계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 2025년, 18~24세 연령의 쇼핑객은 일반 상품 구매의 62%를 매장에서 했고, 이중 25세 이상은 52%였다.
- 쇼핑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인 Macerich는 일부 쇼핑몰 공용 공간을 SNS 친화적이거나 젊은층 취향에 맞게 재설계하고 있으며, Edikted와 같은 온라인 소매업체도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다.

기사

### WSJ: Meet the Companies Vibe Coding Their Own CRMs 회사들이 직접 AI로 CRM 소프트웨어 만들어

- 중소기업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스스로 맞춤형 CRM 소프트웨어를 만듦에 따라 기존 CRM 제공 큰 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 기존 CRM 업체에는 Salesforce, Oracle, Microsoft Dynamics 등이 있으며, 이들은 오랫동안 많은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CRM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AI로 자사 환경과 맞춤형 사용자 경험에 맞는 CRM을 직접 개발하면서, 기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과 가격 정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CRM을 구축해 직원들이 쉽게 사용하고 기업 프로세스에 맞도록 제작하고 있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